문화수도 광주 '문화 수장'은 공석

문화재단 대표 3개월째·문화경제부시장 2개월째 공석
재단 대표, 지난해 재공모 '적격자 없음' 후 움직임 없어
문화계 "지역문화 이해도·실행력·소통능력 갖춘 인물 선임"

광주 문화정책을 컨트롤 하는 문화경제부시장 및 문화기관 '수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문화행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문화계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현재 문화경제부시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각각 2개월, 3개월째 공석 중이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12월 29일 이임했으며, 황풍년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보다 앞서 같은 달 15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문화경제부시장 및 문화재단 대표는 단순히 상징적인 자리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집행을 도모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문화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현재 재단 대표이사는 김요성 광주시 문화정책실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2차 공모까지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난 재단 대표이사 선임 건은 지역 문화계에서는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난 12월 5일 공모 재공고 면접심사까지 했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3차 공모를 포함해 임용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임추위는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시의회 인사 청문회, 시장의 임명 절차에 따라 신임 대표가 결정되는 구조다.

면접이 완료된 직후 적격자 없음이 나올 수 있고, 공모 자격 요건에 미달 시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다.

김성배 문화정책관은 "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재단 이사회 등에서 논의하고 일정을 잡아야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로선 진행되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는 업무적인 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자리를 마냥 공석으로 둘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단 김홍석 사무처장은 "재단 대표이사 공모는 임추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모 계획이 있으면 임추위가 가동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부분은 시 주무부서와 임추위가 함께 결정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화계에서는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실행력, 소통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욱이 심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뜻 공모 절차에 임하는 후보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계 A씨는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 및 수도권까지 확대해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문화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며 "'캠프'나 '정치적 입김' 같은 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문화경제부시장은 현재 총선 후보 경선 문제가 일단락돼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역에서는 전국적인 지명도, 중앙과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존한다.

김대원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문화경제부시장 선임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오래 비워둘 수는 없는 문제"라며 "향후 절차가 개시되면 내용을 시민들께 알리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국도 반한 남도 수묵의 아름다움

이지연 작가, 29일까지 수묵전시…강의·워크숍 진행해 큰 호응

태국에서 진행된 수묵비엔날레 전시 및 워크숍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남도 수묵의 멋과 아름다움, 태국으로 이어지다.

전남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국제수묵비엔날레는 수묵의 세계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3회 개최됐다. 또한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수묵비엔날레는 수묵화의 매력을 알리고 새로운 K콘텐츠로 세계에 통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제레지던시 등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창작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한편 제4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국제수묵비엔날레에 1회, 3회에 참여했던 이지연 작가가 태국에서 29일까지 수묵전시 'Thailand night'을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월부터 태국 RMUTT대학과 레지던스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현지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묵강의, 한국전통수묵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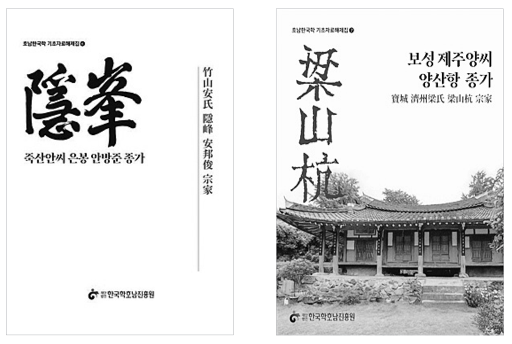
특히 현지에서의 한국전통수묵 강의와 워크숍은 한국의 수묵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는 "해외에서 예술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묵 관련 강의를 펼친 것은 이지연 작가가 첫사례"라며 "이번 전시와 워크숍 등을 계기로 해외에서 우리 수묵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의 선비 '안방준·양산항 종가' 자료집

한국학호남진흥원, 기초자료해제집 2권 간행



안방준(1573~1654)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몸소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활약한 호남의 대표 선비이다. 죽산안씨 은봉 안방준 종가는 절의를 실천하고 현창한 호남의 대표 선비 가문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양씨 양산항 종가는 학포 양팽손(1488~1545)의 다섯째 아들 양응덕을 입향조로 보성군 득량면 박실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문중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최근 죽산안씨 안방준 종가와 제주양씨 양산항 종가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해제집 2권(6~7)을 간행했다.

이번에 간행된 자료는 지난 2022년 기탁된 자료로 고서 198책을 비롯해 고문서 2119점 가운데 주요 자료를 선별해 묶은 것이다. 특히 호남의 선비, 유학자들의 가문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먼저 죽산안씨 안방준 종가는 은봉종가 계보도를 비롯해 종가 소개, 종가의 역사와 일상 등에 관한 도판, 해제, 부록 등이 수록돼 있다.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문화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어 안방준의 사상과 종가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양씨 양산항 종가는 직계도 외에도 종가 관련 화보, 종가의 연원과 인물 등의 도판, 해제, 부록 등의 순서로 돼 있다.

이번 자료집은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홍영기 원장은 "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 6~7은 종가의 역사를 비롯해 자료의 현황과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며 "이번 간행으로 오랜 기간 자료를 소장해왔던 문중과 후손들의 노고를 시도민들과 공유하고 기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요로 추억 여행

29일 양석승 힐링콘서트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소장 양석승)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동구문화센터에서 '제39회 양석승 힐링콘서트'를 연다.

힐링콘서트는 시, 음악, 유머 등을 곁들여 지역문화 소외계층 등을 위해 무료로 진행해 온 공연이다. 그동안 대중가요 공연은 물론 변검극, 마술 등 다양한 장르들을 결합해 시민들을 만나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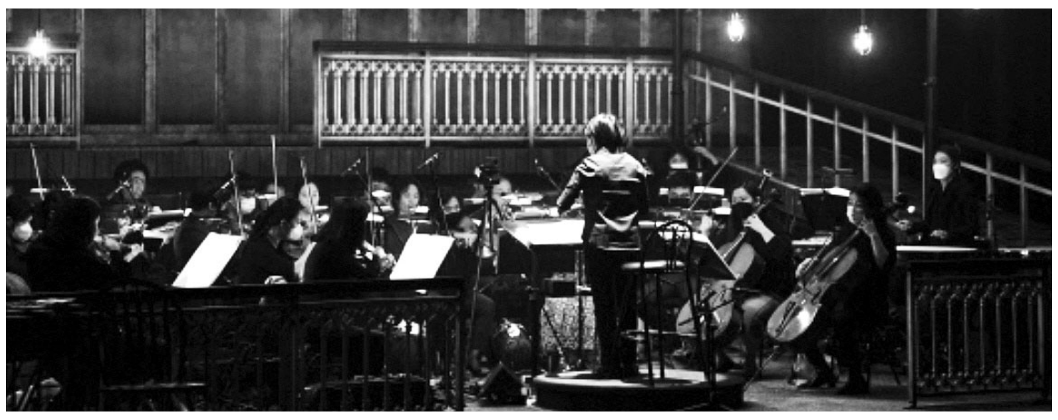
제5회 김기범 가요제 특별상 등을 수상한 가수 안은경이 '못난 놈', '내 맘에 쏙' 등을 부르고 신동석은 '당신의 미소'를 비롯해 배호의 '비겁한 맹세' 등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양석승 소장은 나훈아의 '꽃 당신', 설운도의 '사랑이 이런건가요'를 들려주며 가수 연유는 경기민요 '창부타령', 진소라의 '사랑바람'을, 선민균은 이창용의 '당신이 최고야', 박상철의 '노래방' 등을 부른다.

전금복의 '참사랑', 김향의 '동백 아가씨'와 채호의 대금 연주로 듣는 '칠갑산'도 레퍼토리에 있다. 전유창의 '풍각쟁이', '신 각설이타령', 김현구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등도 준비돼 있다.

한편 양 소장은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15년간 38회 무료 힐링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

국립예술단체서 무대 경험 쌓으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됐던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공연 장면. 〈광주일보 자료〉

다음달 15일까지 청년 단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6개 국립예술단체·국립국악원·국립극장과 함께 3월 15일까지 4개 공연예술 분야에서 '청년 교육단원'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클래식, 무용, 연극 및 뮤지컬, 전통 등 모두 260명의 청년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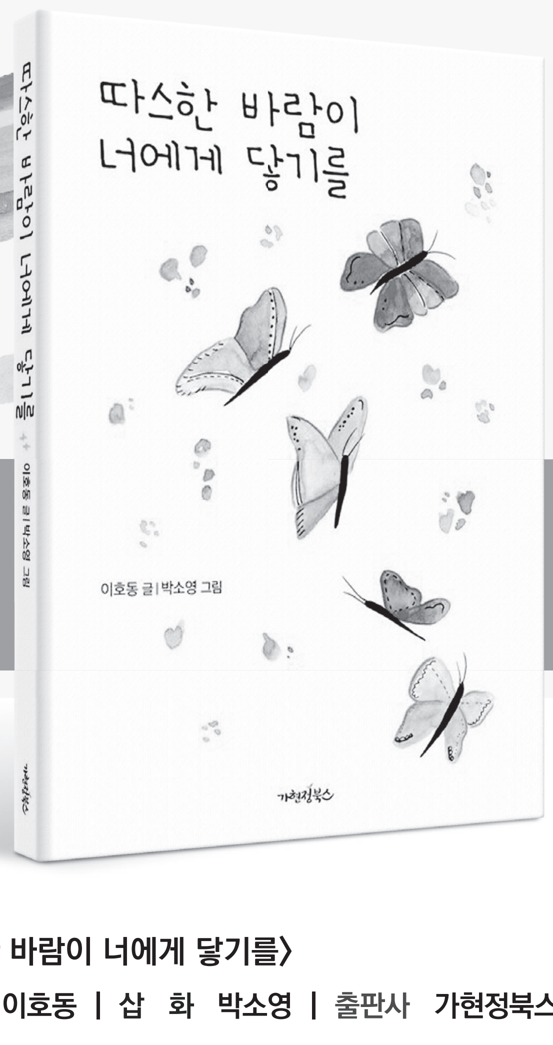
올해는 지난해 95명보다 3배 이상 확대 운영하며 국립극단·극장·오페라단을 비롯해 국립심포네오케스트라·현대무용단 등 유수의 중앙 예술기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국 청년예술가(19세 이상 34세 미만) 중 관련 분야 대학 졸업(예정)자 및 경력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 55명, 클래식 기악 25명, 무용 20명, 연극 및 뮤지컬 50명, 전통예술 110명 등을 공모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

문체부 박소정 공연전통예술과장은 "이번 공모는 차세대 '케이 컬쳐'를 선도할 주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청년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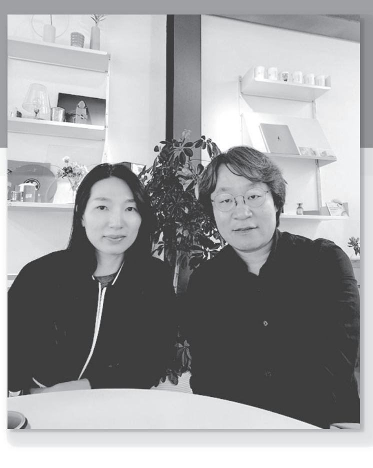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